

예금금리 줄줄이 인하 대출금리는 썰غم 내려

정기선(39·광주시 북구 동림동)씨는 최근 '내 집 마련'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최근 시중금리가 많이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 은행을 찾았으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는 여전히 높았기 때문이다.

정씨는 "2달 뒤 전셋집의 계약이 만료돼 대출을 끼고서라도 집을 사려했는데 이자부담이 너무 크다"며 "금리가 많이 떨어졌는데, 주택대출에 대한 이자는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근 2천만원의 적금을 탄 최모(54)씨는 돈 굴릴 곳을 찾지 못해 고민하고 있다. 당초 적금을 타는 즉시 정기예금으로 옮기려했으나 최근 은행의 예금금리 하락세로 인해 수익성이 크게 떨어진 탓이다.

김씨는 "적금을 타기 전만해도 고금리의 특판 예금이 많았는데 최근 몇 주새 예금금리가 크게 떨어지는 바람에 다른 투자처를 찾고 있다"고 아

은행권 구태의연한 '이자장사' 수범 서민들 분통

주택 대출금리 인하는 흥내만...내집 마련 어려워

쉬워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인 양도성에금증서(CD) 금리가 크게 떨어졌지만 소비자들의 체감금리는 여전히 높기만 하다. 지난달 10일 연 5.89%까지 치솟았던 CD금리가 4일에는 연 5.41%로 떨어졌지만 주택담보 등 대출금리는 사실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은행들은 시중금리 인하 이후 비용에 해당하는 예금금리를 큰 폭으로 떨어뜨리면서 '이자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실제 올해 초 7%대에 육박한 시중은행들의 1

반면 대출금리의 인하에는 매우 인색하다. 지난달 중순 이후 CD금리가 꾸준히 떨어지면서 대출금리도 내리고 있지만 인하폭은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더구나 기존 주택대출자의 경우 대출 이후 3개월이 지난 뒤부터 금리가 조정된다는 점에서 현재의 금리 인하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주 주택대출 금리를 전주보다 0.29%포인트 하락한 연 6.16~7.76%로 낮췄다. 이는 정기예금 금리 인하폭의 3분의 1 수준이다.

하나은행도 현재 주택대출 금리가 연 6.76~7.46%로, 지난달 14일에 비해 0.43%포인트가 떨어졌지만 예금금리 인하폭을 크게 밀고고 있다. 더구나 제일은행은 주택대출 금리를 연 6.90~8.00%로 적용하며 지난달 말보다 오히려 0.05%포인트 올리기도 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대출 근저당권 설정비용 앞으로 은행이 부담한다

앞으로 국내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등록세와 등기신청수수료 등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은행이 부담하게 돼 대출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등 8개의 표준약관을 개정했으며, 은행들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5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표준약관은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 또는 담보권의 행사나 보전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비용만을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근저당설정시 발생하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수수료는 은행이 부담하게 되며, 근저당권 말소등기 때 발생하는 이들 비용은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대신 국민주택채권매입비는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게 되고 인지는 채무자와 은행이 50%씩 부담한다.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수수료는 근저당설정시에는 은행이 부담하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근저당권을 행사할 때는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농축산물 무역적자 100억달러 넘어

작년 육류·과일류 수입 늘어 109억달러 적자

세계 곡물가격이 크게 오르고 수입산 육류·과일 등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 농축산물 무역적자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00억달러를 넘어섰다.

4일 농수산물유통공사(AT) 농수산물 무역정보(KATI) 시스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작년 한 해 농축산물 133억2천433만달러어치(2천706만6천t)를 수입하고 24억350만달러어치(143만t)를 수출해 결과적으로 109억2천84만달러의 적자를 봤다.

작전 연도인 2006년과 비교해 농축산물 수입액이 22.6% 늘어난 반면 수출은 10.2% 증가하는데 그쳐 적자규모가 25.7%나 불었다.

또 이같은 적자 규모는 지난해 우리나라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박춘근) 등 중소기업 지원관련 10개 기관 임직원들이 설을 앞둔 4일 광주 양동북개시장과 양동시장 일원에서 시장바구니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재래시장 이용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위경희기자 jrwi@kwangju.co.kr

작년 12월 사이버쇼핑물 거래액 1조5천억

지난해 12월 사이버쇼핑물 거래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5천억원을 넘었다. 이에 힘입어 지난해 연간 거래액도 전년에 비해 17% 가량 늘어난 15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사이버쇼핑물 거래액은 1조5천80억원으로 전년 동월(1조2천965억원)에 비해 16.3% 증가했다. 12월 거래액은 전월에 비해서는 4.1%(592억원) 늘었다. 월별 사이버쇼핑물 거래액은 지난해 11월 관련통계가 작성된 2001년 1월 이후 처음으로 1조4천억원을 넘어선데 이어 12월에는 1조5천억원을 상회했다.

전년 동월 대비 사이버쇼핑물 거래액 증가율은 8월 16.8%에서 9월 -6.1%로 떨어졌다가 10월 27.4%, 11월 16.3%, 12월 16.3% 등으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장인 87% "연말정산 환급"

평균 45만원 받아 생활비·재테크

'13월의 보너스'인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장인들이 얼마나 받았고 또 그 돈을 어디에 쓸까.

4일 연봉전문사이트 오픈솔라리에 따르면 리서치 전문기관인 엠브레인과 함께 직장인 657명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환급액에 대해 설문한 결과 87.3%가 '환급을 받는다'고 답했다. 반면 12.7%는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더 냈다'고 밝혔다.

세금을 추가로 더 낸 경우를 포함해 직장인들이 환급받은 돈은 평균 45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으로 받은 돈을 주로 '생활비에 추가'(42.8%)하거나 '재테크에 투자'(20.6%)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생활비에 추가한다는 응답이 많았고 반대로 연령이 낮을수록 재테크에 투자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연합뉴스



농협 1,600억 달성탑 수상 이덕수(왼쪽 네번째) 농협전남지역본부장은 4일 본부 회의실에서 2007년 경제사업 1천600억원 달성탑을 수상한 박종재(왼쪽 세번째) 광주원에농협 조합장, 농산물품질경영연대상을 수상한 허영희(왼쪽 다섯번째) 광양 진상농협 조합장에게 증정회를 대신해 시상했다. <전남농협 제공>

대주그룹 임원 인사

대주그룹은 지난 1일자로 3명의 임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대주건설 관리본부장 오용학씨
 대한시멘트 대표이사 박춘규씨
 그룹재무본부장 조덕중씨
 오용학 그룹재무본부장 겸 대주건설 관리본부장이 대주건설 관리본부장에 임명됐다. 박춘규 대한시멘트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대한시멘트 대표이사과 대한기초소재 대표이사를 겸임하게 됐다.

또 조덕중 대한기초소재 대표이사는 그룹재무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외국인 돌아왔다

이틀 연속 순매수 코스피 지수 1700선 육박 아시아 증시도 동반 상승 ... 연휴 효과 진단도

코스피 지수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4일 일제히 상승하는 등 주식시장에 봄 기운이 싹트고 있다.

이날 아시아 증시는 미국경제의 침체가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는 진단 속에 지난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금리인하 이후 글로벌 증시 회복세와 맞물려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다.

◇코스피지수 1,690대 회복... 아시아 증시 동반 상승=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5.60포인트(3.40%) 오른 1,690.13으로 마감했다. 이날 상승폭과 상승률은 지난해 11월26일의 82.45포인트(4.6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코스닥지수도 25.81포인트(4.21%) 급등한 638.38에 마감돼 600선 붕괴에 대한 우려감을 완전히 떨쳤다.

아시아 증시도 동반 상승했다. 이날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일 대비 351.40포인트(8.13%) 급등한 4,672.17로 장을 마감했다. 일본 닛케이지수도 1만3859.70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전일 대비 362.54포인트(2.69%) 오른 것이다.

홍콩증시의 항셱지수는 지난 주말보

통신요금 인하 경쟁

SK텔레콤, 가족 통화 요금 최대 50% 할인 KT도 인터넷·TV 결합상품 절감방안 내놔

통신비 인하를 업계 자율에 맡기겠다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발표가 나온 지 하루 만인 4일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이 일제히 통신요금 절감방안을 발표했다.

KT는 이날 KT 일반전화와 초고속인터넷 '메가패스'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KTF의 3세대(G) 이동통신 '쇼', 인터넷(TV) '메가TV'를 합친 결합상품을 정부 인가가 떨어지는데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달중 출시 예정인 KT 결합상품은 약정기간에 따라 일반전화, 메가패스, 휴대전화, 메가TV는 기본료의 10%, 인터넷전화는 50%까지 할인된다. KT 관계자는 "월 9만2천원 이하를 쓰는 가정의 경우, 일반전화, 메가패스 스페셜, 메가TV, 쇼를 결합한다면 20% 이상의 통신비 절감효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SK텔레콤도 이날 가족할인제 도입, 망내통화 할인을 확대, 결합상품 출시 등의 통신비 절감 방안을 내놓았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업·제조업 35% '독과점'

우리나라 전 산업에서 상위 100대 기업이 전체 매출액의 30% 가량을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업 및 제조업부문 제품 중 23.5%는 독점형 시장이었고, 11.6%는 과점형 시장으로 집계됐다.

통계청 통계개발원은 '우리나라의 산업지주 및 시장구조 실태분석' 보고서에서 통계청의 '광공업 및 제조업 통계조사', '서비스업 통계조사' 원자료 등을 이용해 산업집중 및 시장구조를 측정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포디자인	웹디자인 / 플래시 디자이너 (경력자) 모집	고졸/경력1	회사내규	02/09	062-350-3977
두메푸드시스템(주)	[외식부]유통기사/외식영업/영상사/푸드코디네이터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11	062-571-6000
우신	티어 글형 제작 설계 / 현장 직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2/11	016-610-0469
누리원	일반사무/전산편집 여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2/12	062-523-9093
㈜대광건설	건축기사 및 안전기사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13	062-360-9342
한국생산기술연구원광주연구원	[기계/금형 설계 및 해석(Simulation)연구개발직] 모집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15	062-6006-098
신성자동차(주)	메르세데스 벤츠 정비 기술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16	062-226-0001
영우건설(주)	토목기사 경력직 모집	초대졸/경력3년	2200~2400	02/16	062-654-8324
㈜창일	품질관리서류 및 총무관리 담당자	초대졸/경력1년	회사내규	02/16	062-945-9512
㈜신광세링	팩 편집디자이너 모집	고졸/경력1년	1200~1400	02/16	010-5614-7039
㈜효광	품질관리 채용공고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16	062-945-9512
㈜은하	렌지후드 및 환기장치 사후관리(A/S)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2/16	062-952-5370
나라건설(주)	건설현장-관리, 시공 경력자모집	대졸/경력3년	2600~2800	02/16	062-972-9612
SMA Technologie AG	[광주중·고외국계 법인 기술엔지니어] 경력직 모집	초대졸/경력2년	회사내규	02/18	02-3466-5258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해외건설인력 내년까지 5천명 양성

해외건설물량 수주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까지 5천명의 해외건설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해외건설 수주물량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데 비해 해외건설 인력은 부족한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올해 2천명, 내년에 3천명의 해외건설 인력을 추가로 양성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건교부는 2006년 4월 해외건설협회에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를 만들어 2006년 783명, 작년 1천177명 등 총 2천명을 양성했다. 올해에는 교육기관이 해외건설협회뿐 아니라 건설기술교육원으로 확대되고 투자개발형 프로젝트 확대 추세에 따라 금융, 건설사업관리(CM), 프로젝트매니지먼트(PM)분야에 대한 교육도 강화된다. /연합뉴스